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November, December 2008 Edition

“Amen,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taken place. Heaven and earth will pass 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Mt 24: 34-35)

# New Generation to Renew, the Sign of the Century



faith, your idealism and your generosity, so that she can always be young in the Spiri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cts 1:8)**

Open your hearts to the power of Christ's Spirit and the richness of his gifts. May the fire of God's love descend to fill your hearts, unite you ever more fully to the Lord and his Church, and send you forth, a new generation of apostles, to bring the world to Christ! It is the power of God's life! It is the power of the same Spirit who hovered over the waters at the dawn of creation and who, in the

The world needs this renewal! In so many of our societies, side by side with material prosperity, a spiritual desert is spreading: an interior emptiness, an unnamed fear, a quiet sense of despair.

The Church also needs this renewal! She needs your

fullness of time, raised Jesus from the dead. It is the power which points us, and our world, towards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Papal Homily at Closing Mass in World Youth Day,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 수원 교구 ‘황 데레사의 사적 계시’ 관련 교령 발표

수원 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는 교회가 금지한 ‘황 데레사의 사적 계시’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성경과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기 주교는 최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해 발표한 교령에서 “그 내용이 정통 가톨릭 교회의 신앙 유산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주교는 특히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와 '성모 성심 수녀회' 그리고 '성 요셉 애덕 수녀회'등 세 곳의 수도회는 “그동안 황 데레사와 관련된 사적계시를 받아 들여 수도 생활을 했음을 밝히는 내용을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수도회 세 곳에 대해 사적 계시와 관련된 모든 기도문과 상을 삭제 또는 철거하고 이미 유포된 기도문이나 책자들을 회수해 교구청으로 보낼 것을 주문했다.

최 주교는 “황 데레사의 사적 계시를 공적으로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주교의 이번 교령 반포는 지난 1957년 당시 대구 교구장 서정길 주교의 교령과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공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도권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수도회 세 곳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 페이트빌 성령 안의 삶 세미나. 9월 18일 - 9월 21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페이트빌에서 주님의 추수꾼들에게 많은 열매가 거뭇지는 주님의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정갈하고 따뜻한 한국 어머니 모습의 성모님이 계신 성모당이 서 있는 목조 건물의 아름다운 작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성령안의 삶 세미나가 열렸다.

성모님의 부르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시작된 세미나, 교우가 겨우 7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성당이지만 추수된 열매는 70배가 넘었다.

# 성령께서 이끌고 보살펴 주시는 나의 삶 성령의 불을 밝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 경숙 크리스티나  
페이트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부모, 형제, 친구들과 헤어져 태평양을 건너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내내 울며 미국에 왔다. 왜 나는 미국에 와야 하는가?

미국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남편과 사랑스런 두 딸을 만났다. 4 살 반, 6 살짜리 단발 머리의 두 어린 아이의 눈망울을 지울수가 없었다. 내가 낳지도 않고 두딸을 얻었으니 이걸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나는 미국에 오자마자 먼저 남편과 애들을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시키고 2 년간 교리 공부와 복사 10 년을 하도록 하여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걸 가르쳤다. 레지오할 때도 성가대 연습할 때도, 환자 방문, 양로원 방문, 구역 모임, 성당 청소도 나는 항상 두 딸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딸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비서가 되고 운전사가 되고, 항상 나를 도와 주는 수호 천사가 되었다.

예쁘고 잘자란 딸들을 저에게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항상 웃고 착하고 건강한 큰 딸,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작은 딸, 모두 우리 부부의 보배요 선물이다.

15 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후 이민 온 조카 가족, 사돈 가족, 시누님 두분 온 가족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밀알 하나 땅 속에 섞어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성령 기도회를 친구 따라 몇 번 가고 성가 반주만 가끔 했을 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본당 성령 세미나에 참가하고 나서야 지금까지 나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이고 성령의 보살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성령 기도회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만 알았다. 우리 본당은 주일 미사 신자 수가 70 명 정도인데 어떻게 본당 주최 성령 세미나를 할 낀지 우리는 놀랐다. 그러나 사목회 통과 후 우리는 자금 마련을 위해 김치 판매 계획을 세우고 100 병을 팔았다. 적은 회비와 도네이션으로 우리는 성령 세미나를 할 수 있었다.

세 차례나 본당 신부님께서 찬미의 밤을 미리 해주셔서 우리는 40 명이나 참가 하였다.

첫 날은 서먹 서먹 했으나 둘째 날은 조별 모임이 있고 강의를 듣고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셋째날 개별 고해 성사와 강의 찬미 찬양에 우리는 밤 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지막 날 주일 미사 후 새로 참석한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와 소감 발표, 아멘, 알레루야 울동으로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벽찬 가슴과 기쁨과 아쉬움으로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 기도 찬미 찬양은 두번 세번 계속되었다.

우리 본당은 10 년간 성령 기도회가 있다가 최근에는 중단되었다. 이번 세미나 후 다섯 명이 다시 모여 금요일 미사 후 새로 시작하였다. 지난 주는 일곱 명이 모였다. 그 중 두 형제님이 계시는데 기도와 찬미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주일의 모든 바쁜 일과 피곤과 모든 어려움을 신령한 기도로 주님께 고하고, 주님을 찬미하면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해 진다. 성령님의 현존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기도회가 기다려 진다. 나의 온 마음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불을 밝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불편한 몸으로 먼길 마다 앓고 오신 박창득 목사님, 호탕하고 멋있는 이창재 요셉 부제님, 예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리아님, 항상 웃는 얼굴과 명강의와 울동과 노래를 가르쳐 주신 엘리자벳님과 마리아님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곳곳 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작은 나눔 큰 기쁨

익명	뉴저지	\$300.00
이창재 부제	미네소타	\$680.00
안희숙 엘리자벳	노스 캐롤라이나	\$300.00
이정희 마리아	버지니아	\$200.00

올해 헌금해 주신 분들께 소득세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내년 1월에 보내 드립니다.

### 동봉한 봉투에 작은 정성 나눠 주세요!

2009년도 세미나 스케줄은 내년 1월호에 공지합니다.

# 동중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40대 중심, 대부분 첫 참여

이들 젊은 교우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신앙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 복음 전파의 증거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세미나가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고백했다.

지도 사제인 김용호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볼티모어 본당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본당의 예비 신자와 견진자들을 위한 피정으로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또한 2년 전에는 각 지역 소공동체를 대상으로 본당 자체 내에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에미즈버그에 있는 씨튼 피정 센터에서 동중부 지역 성령 쇄신 봉사회 (지도: 김용호 신부, 회장: 최테레사)가 주최하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열려, 멀리 샌디아고와 인디애나, 피츠버그 및 버지니아, 워싱턴, 해리스버그 햄튼 등 8개 지역에서 온 신자들 50여명이 함께 모였다.

사제 3명 (김용호, 이태신, 김일영 신부)과 다섯 평신도 봉사자 (김정자, 안희숙, 최숙자, 이정희, 최옥진)들이 이끈 이번 세미나는, 각기 다른 환경과 신앙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 가고자 하는 전환의 시간들로 채워졌다.

40대가 주축이 된 세미나에는 2/3 이상이 처음 참석하는 교우들이었다. 교회 안의 세대 교체를 이루는

음을 본당 교우들에게 인식시켜 왔다.

한편 해리스버그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태신 신부는 피정에 참가하는 교우들에게 보조 교육비를 제공하며 본인도 함께 3박 4일 피정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교우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동중부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는 11월 말에는 동중부 지역 철야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9년도 메모리얼 주말인 5월 24일, 25일 (주일, 월)에는 제2회 성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KSC 2009 과달루페 성지 순례

내년 2월 9일 부터 13일 까지 4박 5일 동안 과달루페 성지를 순례합니다. 다른 성지 순례와는 달리 매일 밤 기도회 모임을 갖고 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경비 및 자세한 일정에 대한 문의는 이은경 줄리아 253 223-8775로 문의하십시오.